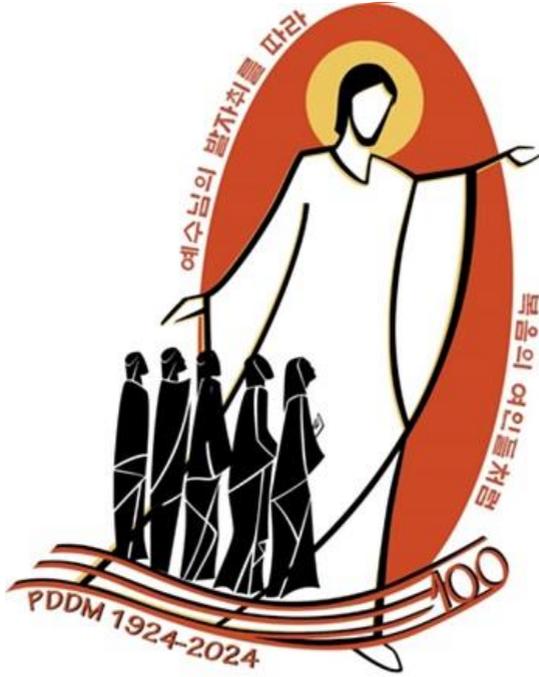


창립 희년을 위한 영적 여정



셋째 단계

2022년 11월 21일 - 2024년 2월 10일

III. 단계

희년: 새로운 충실함, 신뢰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시기

2023년 4월 9일 부활 대축일 - 8월 30일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여 제자들 (루카 24,6-8 참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사야 61; 루카 4,18-19 참조).

우리는 길 • 진리 •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는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복음의 여인들처럼 ... (RV 9).

우리는 스승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파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마르 3,13-14 참조)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명을 계속하시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친히 자유롭게 하고 구원하는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시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받아들임과 전멸의 상태에서 그분의 죽음을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체험했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이 인류에게 주교자 하시는 충만한 삶의 믿을 만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화와 기도에 유용한 말씀

카리스마의 원전에서

뿌리에서 본 나무¹

그의(마드레 스킨라스티카) 영적 성숙에 대한 요지는 1946년 5월 7일자로 성 요셉 빌라²에서 “유배” 중일 때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에게 쓴 편지³에서 엿볼 수 있다.

1946년 5월 7일 성요셉 집

존경하을 시뇨르 마에스트로께

신부님이 키아바라⁴에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주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빕니다. 신부님의 조언은 제게 대단히 소중한고 유익하였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반항이나 낙담과 같은 생각이 저를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그 모든 생각을 쫓아내고, 모든 것을 진리의 빛 안에서 보시고, 모든 것에서 당신의 영광과 우리를 위한 공로의 기회를 끌어내시는 그분께 저를 맡겨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생각이 저를 엄습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안배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죄와 특히 큰 교만에 대한 보속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벌을 받도록 했던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몬시뇰 파세토가 쓴 그 편

¹ R. Cesarato - G. Oberto, 뿌리에서 본 나무 2권, PDDM, 로마 2000 비매품, pp.136-138.

² 로마 - SSP 집(수도원), via portuense 746, 현재의 관구원. 편지는 수도회성의 명령에 따라 M. 나자레나와 M. 아냐치아가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폭로하고 있다.

³ SGeFP (바오로가족 총 역사 문서고) - M. 스킨라스티카가 자카르도 신부와 M. 루치아 리치에게 보낸 다른 편지들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⁴ 키아바라에는 1940년부터 FSP의 서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카르도 신부가 M. 스킨라스티카에게 보낸 편지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에서 “통상적이고 유효한 명령도 받지 않고 아무런 통제 없이, 경건한 제자들의 그룹에서 마음대로 행하거나 취소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건한 제자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말이나 글로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았으며 또한 그 모든 것에 대해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M. 나자레나와 M. 이냐치아가 서명하여 각 분원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어떤 식으로든 자치 통솔이 있었고 이로 인해 혼란과 피해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혼란과 피해를 주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길게 투쟁할 능력이 없고, 슬픔을 떨쳐버리기 위해 좋은 생각을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성모님께 달려갑니다. 성모님은 저에게 큰 위안을 주시고 항상 나를 평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시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로 저를 강인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룩한 성체가 모셔진 감실이 있고, 매일 성체를 영하고, 저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계시며, 곧 나를 기다리고 있을 천국에 대한 감미로운 희망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영혼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을 만큼 충만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한 지상의 것들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천상 스승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쓰라림으로 바꾸시고, 저에게 천국의 것만을 더 갈망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시련을 통해 제가 “예수님, 저를 침묵 속에 두시고, 저를 숨어 있게 하시고, 저를 겸손하고 단순하며, 작음 가운데 머무르게 해 주소서...”라고 그토록 간구했던 저의 기도를 놀랍게 들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보시기에는 그분이 저의 그 열망을 들어주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자 수녀회에 관해서, 저는 스승 예수님께서서 다른 많은 수도 가족과 마찬가지로 당신 교회 안에 제자 수녀회도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저의 괴로움과 고통을 봉헌합니다. 다른 사람이 장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매우 기쁘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 잘할 것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만 한다면... 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 자신을 희생제물, 호스티아로 잘 봉헌하고 있음에 주님께 많이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며, 저의 감미로운 구세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하신 정배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저에게 사랑의 선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려

주십시오. 저는 신부님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고 신뢰하며 신중함과 온유함을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바에 있는 모든 수녀님에게 저의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형제애로 그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 그들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제자 수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을 크게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스승 예수께서 모든 것에 대해 다 갚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부족한 딸 스킨라스티카 수녀

마드레 마리아 스킨라스티카에게 몰아닥친 폭풍우는 그녀의 희망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부터 받았던 “은총”에 대한 그의 확신을 드러내었다. 마드레 자신이 정의한 대로 이 시기에 걸은 “갈바리오”는 부활의 빛을 향한 수도회 전체의 여정이었다.

창립자가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들에게 하신 강의

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정녕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사 45,15). 주님께서서는 성체 안에 계십니다. 누가 그분을 압니까? 누가 그분을 사랑합니까? 오래전에 나는 그런 생각에 머물며 이렇게 청하곤 했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당신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기도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사랑의 성사로 당신을 공경하고, 영혼들을 당신의 감실로 데려오는 수도가족이 태어나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 이날은 여러분의 탄생일로 새겨졌고, 창립기념일로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래전 이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특별한 사도직에 헌신하도록 불리움 받은 이들을 따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 성소의 씨앗은 훨씬 더 오래전에 심어졌지만, 외적으로는 1923 (1924)년 2월 10일에 작은 공동체의 설립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다. … 여러분과 사제들은 언제나 매우 섬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께 하셨듯이 여러분도 사제들과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고, 신중히 행동하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녀 스콜라스티카 기념일에 베네딕토회 남녀 수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과거에 행했고 또 현재 행하고 있는 전례 예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전례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더 잘해야 합니다. 단지 외적인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전례의 심오한 부분까지 들어가십시오. 다른 모든 이들이 하는 것보다 더 깊고, 탁월하게 행함으로써 참된 사도직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는 바로 사람들을 성체께 데려가는 일입니다!

저는 스승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의 사명에 필요한 모든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여러분은 전례 사도직을 완수해야 하는데, 이 사도직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예식에 깊이 참여하고, 거룩한 전례 안에서 교회의 정신을 인식하고 깨달으며 통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례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교리교육을 중시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책과 같은 전례에 관한 학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례는 다음의 것을 제시합니다.

- 알아야 할 진리.
- 실천해야 할 덕.
- 청해야 할 은총.

제자 수녀들의 성당에서 거행하는 전례 예식은 아주 정확하고, 온 정성을 다하며, 전례 규정을 올바르게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당에서 거행하는 거룩한 예식들은 아름답고 경건하며 감화를 주어야 합니다. 정

성을 다해 봉헌하는 미사, 아름다운 성가들, 경건한 예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도 깊은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신자들은 여러분의 성당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무릎을 꿇고, 흠숭하며,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히 전례 신심의 정신과 전례에 관한 지식과 그 실천 사항을 널리 전파하십시오.

전례 사도직은 출판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계획하다: 이를 위해 면학이 필요하며 특히 신학과 전례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고 효과적인 모든 방법으로 거룩한 우리 종교의 신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억 7천만 명의 중국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삽화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교리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실행하다: 이는 회화, 조각, 수예, 다양한 전례용품, 전례복 제작 등의 기술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돌봄과 애덕을 필요로 하는 성당이 얼마나 많은지! 선교지역의 시골과 산 속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경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수많은 거처가 얼마나 무질서하고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지!

이 일은 얼마나 광범위한지 큰 수도회 전체가 이 일만을 사도직으로 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교회의 규정을 따라 엄선된 좋은 곡을 활용하십시오. 성음악은 하느님의 백성을 끌어당기고 특히 젊은이들을 하느님께로 모아들이는 훌륭한 수

단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아름답게 연주한 성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높여 하느님께 가도록 인도합니다.

3. 보급하다: 이는 여러분이 생산한 것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교는 출판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비록 형태도 다르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수도가정은 성령의 활동 안에 있으며, 성령께서 그 가정을 비추시고, 다스리시며, 지탱하고, 인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길과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에 무능하지만 그분의 도우심에 깊이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근면하게 하며, 많은 공로를 쌓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 데려가게 할 것입니다.⁵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도직을 거의 외적 활동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직을 하느님 앞에 놓인 순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은둔과 침묵, 기도 속에서 30년 동안이나 사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30년 동안만 사도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오로지 공생활 3년 동안에만 사도였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33년 동안 사도이셨고, 내적 생활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당신이 원하셨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도직을 수행하셨으며, 이 사도직을 하도록 모든 이를 부르십니다.

⁵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 1946-47, 133.140.142-144.146 ss.

사도직의 5가지 기본 형태

- 내적 생활의 사도직
- 거룩한 원의의 사도직
- 좋은 표양의 사도직
- 기도의 사도직
- 고통의 사도직

이 밖에도 활동의 사도직이 있는데 이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 선교의 사도직
- 자선의 사도직
- 설교의 사도직
- 출판의 사도직 등.

사도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직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한 우리의 활동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적 생활의 사도직

많은 사람이 내적 생활보다는 외적 활동에 중점을 두는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오류를 멀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 첫째 사도직은 자기 성화의 사도직입니다. 이 사도직은 그 누구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사도직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도직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0 이 세계가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만, 그 앞에 1 자를 붙이면 1000이 되고, 그 1을 그대로 두고 0 하나를 더 붙이면 그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내적 생활의 사도직이 언제나 그 귀한 숫자 단위의 첫 자리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깨달도록 합시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자신을 낮추고 작은 이가 됩니다. 또한 죄⁶의 용서를 구하고 스승 예수님께 조언을 청하며,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고양되었습니다. 마르타가 들어와 그 광경을 보고 약간의 시기를 느낀 나머지, 화가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며,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을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Lc 10,38-42 참조)하고 대답하셨습니다. … 여러분도 때때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하신 그 견책을 들을만하지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함께 쉬시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베타니아에 들르셨는데, 마르타는 손님 맞이의 첫번째 의무인 접대, 곧 손님의 벗이 되어야 하는 임무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마르타는 친밀한 사랑보다는 사회적인 예의로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꾸짖으시며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가 하는 일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근본적인 의무를 망각하고 많은 일을 걱정한 것에 대해 나무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첫 2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바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과를 좋은 몫에 바치면서 시작한다면, 나머지 모든 시간은 축복 받을 것입니다. 외적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적 생활을 더 잘 가꾸도록 하십시오. …

세상에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뿌려지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길이나

⁶ 알베리오네 신부는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루카 복음 7장의 죄녀 마리아와 동일시 하던 당시의 주석을 기록하였다.

자갈밭, 또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집니다.

이는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한결 같은 확신으로 은총을 끌어당기고 선을 행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께서는 다른 어떤 인간 피조물보다 더 많은 은총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가정의 어머니들도 온 가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은총을 붓습니다.

제자 수녀들이 참된 내적 생활의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 교에 얼마나 많은 은총을 쏟아부으셨습니까? 이 은총이 믿지 않는 이들과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성소자들을 증가시키며 사제들을 성화시킬 만큼 흘러넘칠 것입니다. 은총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은총을 얻어 주어야 하며, 은총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얻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행동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심판 날에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내적 생활로 구원받은 많은 영혼을 보며 놀랄 것입니다.

평생 일을 하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땀을 흘리고, 걷고 수고하지만 아무 결실 없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내적 생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 자 없는 여러 개의 0 이요, 쓸모없는 나무로, 겉보기에는 나무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이 내적 생활의 필요성을 참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갑니까? 기초가 부실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가 무익하게 생활한 후에 소멸하고 맙니까! 얼마나 많은 활동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까! 예수님께서 성 요한에 대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타올라야 합니

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활동이 아니라 은총이며, 단지 외적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⁷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성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예수의 제자인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빛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수도생활을 잘하고, 발한 서원을 실천하고, 우리 존재를 하느님께 바친 그 봉헌«저를 온전히 드리고 바치고 봉헌합니다.»을 살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점점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수도자들의 입에서, 특히 천상 스승님께 속한 여러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마니피카티가 들리겠습니까! 길은 그분입니다.⁸

⁷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 1946-47, 268- 284.

⁸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 1957,146

생명의 규칙에서

5.

우리 수도회의 창립은 십자가의 봉인을 수반하는 사건들이 거듭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숙해졌다. 처음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 바오로 딸 수도회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동체로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를 설립하였으나, 그들은 교회법상 하나로 통합되어 승인받게 되었다.

창립자와 마드레 스콜라스티카의 관여, 그리고 생명을 바친 티모테오 자카르도 신부(1896-1948)의 희생은 교회가 우리 수도회를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1947년 4월 3일 성목요일에 교구승인 교령이 반포되었다.

우리 카리스마는 1948년 1월 12일 성좌의 첫 승인을 받고, 1960년 8월 30일에 성좌 최종승인을 받음으로써 카리스마의 보편성과 사도적 효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시복으로 표출된 교회의 인정은 우리의 성소를 확인시켜주었다.

13.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우리는 자유롭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분께 응답을 드린다. 또한 우리를 성부께 인도하는 새롭고 생명력 있는 ‘길’,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그리스도께 충만히 동화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삶을 산다.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뜻깊은 날들

1946년 4월 13일: 교황청 수도회부는 마드레 스콜라스티카에게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안에서 그녀의 권한이 남용되었다고 간주하여 박탈하였음을 편지와 함께 알립니다.⁹

2003년 4월 27일: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복자품에 오르심

1963년 5월 8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께서 아르헨티나에서 로마로 아주 귀국하심

2023년 6월 3-29일: 제10차 수도회총회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만남의 아름다움, 파견된 이의 기쁨”.

1897년 7월 12일: 구아레네에서 오르솔라 리바타 탄생: 이분 안에서 하느님 계획의 빛을 본다.

1946년 7월 20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께서 이탈리아를 떠나 파리로 출발하심.¹⁰

1922년 7월 29일: 오르솔라는 아버지 안토니오의 동반을 받아 성바오로에 입회한다.¹¹

⁹ 뿌리에서 본 나무 참조 pp. 131 ss.

¹⁰ 뿌리에서 본 나무 참조 pp. 142 ss.

¹¹ 뿌리에서 본 나무 참조 p. 32.

1941년 8월 6일: 마드레 스콜라스티카는 수도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¹²

1924년 8월 15일: 성체조배를 밤, 낮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¹³

1946년 8월 24일: 교황청 수도회부 교령은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스승 예수의 제자 그룹의 법적 분리"¹⁴를 거부하였고, 알베리오네 신부는 8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내려온 지시 대로 순명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온순한 것입니다..."¹⁵

1960년 8월 30일: 성좌 최종 승인을 받았다.¹⁶

¹² 마드레 스콜라스티카는 다음과 같이 썼다. "1941년 거룩한 변모 축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목상하는 날. 우리는 그분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관상하는 날.:"나는 오늘, 8월 6일 예수님의 변모 축일에 경건한 제자 수녀회를 위해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나에게 보내시는 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모든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행위로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요셉 오베르토 저, 『마드레스콜라스티카 리바타,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에서 ed. Velar, Gorle (Bg) 2008, p. 28.

¹³ 뿌리에서 본 나무 p. 51.참조

¹⁴ 뿌리에서 본 나무 pp. 146ss.참조

¹⁵ 뿌리에서 본 나무 p. 149.참조

¹⁶ 마드레 마리아 루치아 리치의 공문 (로마에서) 1960년 10월 22일, PDDM 총원.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총원 - Via Gabriele Rossetti, 17 - 00152 - Roma

<http://pddm.org>